

공예 + 디자인

CRAFT + DESIGN



2021 01+02 NO.047

공예로 전하는 내일의 메시지

대학관 우수작품상은 신진 작가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한다는 메시지와 같다.
이번 행사에서는 예년과 달리 수상자로 3명을 호명해 화제성을 더했다.

금속에 투영하는 질문들

대학관 우수작품상 수상자 **성연희**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금속디자인과)



작품명인 '해몽'은 '생각'의 순우리말로 작가의 생각을 온전히 담아내고 싶은 의지를 상징한다.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생각을 실제 형태로 옮겨내고 싶다는 생각이었고, 금속판을 접거나 구부리고 여러 면이 만나게 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지금의 형태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성연희 작가는 금속을 기반으로 다양한 물성을 조합하는데에 관심이 있다. 앞으로 탐구하고 싶은 주제는 가방이다. 금속 재료로 만든다면 기성 가방과 비교했을 때 실용성이 떨어지겠지만, 그 한계만 잘 다룬다면 전에 없던 형태와 독창적인 쓰임새를 갖게 되리라고 예상한다. 타인에게 또 다른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을 꿈꾸고 있다.

식기 위에 내려앉은 도자꽃

대학관 우수작품상 수상자 **이소후**
(서울여자대학교 공예과)



'도자기 꽃이 움 붙다'는 뜻을 담아 '도화선'이란 작품명으로, 테이블웨어 시리즈를 만들었다. 한국적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기 위해 모란, 수국, 애기동백, 함박꽃, 연꽃을 모티프로 디자인했으며, 석고 캐스팅과 조각·투각 기법으로 표현했다. 이번 페어를 준비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받은 것이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그중 작품의 여러 요소에서 형태보다 색감이 강력한 매력 포인트가 된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고, 앞으로 그에 관한 연구를 쌓아갈 예정이다. 형태적 실험뿐 아니라 다양한 색채와 표현 기법을 시도해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트렌디한 도자 공예품을 선보이는 것이 목표다.

목재 고유의 물성을 드러내다

대학관 우수작품상 수상자 **이재영**
(홍익대학교 목조형기구학과)



2020년 페어에서는 '행동하는 시간' 시리즈로 스물과 오브제를 선보였다. 눈앞의 이미지보다 그 이미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런 이유로 작업 과정이 표면에 새겨지는 카빙과 에보나이징 기법을 활용했다. 에보나이징이란 목재의 타닌 성분과 철 성분을 결합해 목재 표면을 검게 물들이는 기법으로, 목재의 결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시각적·촉각적 경험을 통해 현재에 더욱 집중하길 바라는 메시지를 표현했다. 2021년에는 목재 물성 연구에 매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물리적 표현 방식이 삶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구조와 이야기로 드러날 수 있을지 연구할 계획이다. ■



성연희 제공



이소후 제공



이재영 제공